

## 자기소개서

소 속	○○고등학교	직 위	○○	성 명	○○○
-----	--------	-----	----	-----	-----

## 1

## 성실성과 책임감을 깨우쳤던 어린 시절

진주 주변 작은 농촌 마을에서 태어나 농사를 짓는 부모님 밑에서 어려서부터 농사일을 손에 익히면서 자랐습니다. 당시 농촌에서 자란 사람들 대부분 경험한 것이지만 초등학교도 중요한 일손이라 학교에서 돌아오면 공부보다는 농사일을 거드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틈이 날 때마다 공부보다는 농사일을 도와야 했던 지원자의 당시 생활을 돌이켜 보면 분명히 힘든 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농사를 지어야 가족들이 살아갈 수 있었던 가정형편, 부모님의 애쓰시는 모습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려야 하겠다면 어린 시절의 순수한 마음은 농사를 짓는 것처럼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는 성실함을 가르쳐 주었고, 이러한 가르침은 저의 삶에 성실이라는 기본적인 습관을 형성하도록 했습니다.**

작은 농촌 학교라 마땅한 학생을 찾지 못한 담임 선생님의 권유로 초등학교 5학년 때 배구 선수 생활을 했습니다. 당시 학교 배구선수로 활동하면서 각종 대회에서 우승하여 학교의 이름을 알림과 동시에 개인적으로 배구라는 특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배구 선수 생활을 하면서 단지 배구 기술을 습득한 것만이 아니라 강한 책임감을 배웠다는 것이 제가 배구를 통해 얻은 자산이며, 이러한 책임감은 교직원생활을 하는 동안 학생에 대한 책임감을 형성하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또한 당시 5,6학년 담임 선생님이면서 배구를 지도하신 ○○○선생님의 제자에 대한 헌신적 사랑, **교직원생활에 열정을 보이시던 모습은 제가 교직의 길로 들어서는데 많은 영향을 주었고, 지금도 선생님의 헌신적인 제자 사랑의 모습을 본받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2

## 고성중앙고 교장 공모에 지원하며

로또 인생과 같이 고성중앙고 교장이라는 행운을 바라면서 교장 공모에 지원한 것은 아닙니다. 고성중앙고 교장 공모 공고문을 보고 3일 동안 여러 생각을 했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의 이유는 교장 공모 지원 여부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학교구성원이나 지역사회에서 요구하는 공모교장의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고민의 해결 과정에서 저를 잘 알고 있는 선배 교사나 지인들에게 자문과 조언을 구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공모교장으로서 고성중앙고의 발전을 설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2004.3.1.~2008.2.28.까지 본교에 근무했습니다.** 진주지역 인문계고등학교에서 근무하다가 전입했는데, 당시에는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교사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신입생 유치였습니다. **지원자 역시 5년 동안 신입생 유치를 위해 고성읍, 동해, 상리, 삼산 등 고성 대부분 지역은 물론 거제, 통영지역 중학교까지 방문했습니다.**

저는 **5년 근무 동안 3학년 담임 2년, 학년부장 3년(담임교사와 중복)을 하면서 진로진학 일선에서 늘 학생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 함께 있었습니다.** 저의 고성중앙고등학교에서의 5년간 근무기간에 있어 전반기만 하더라도 지역의 사립고에서 대부분의 상위권 학생을 선점했으므로 본교 신입생들의 성적은 몇 명의 상위권과 다수의 하위권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역의 사립고에 비해 입시성적이 낮을 수밖에 없었고, 낮은 입시성적은 해마다 신입생 유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이 지속되었습니다.

전입 첫해 저는 **2학년 담임교사와 2학년 기획을 맡았는데,** 당시 2학년 부장교사는 학생들의 진로진학에 명성이 있었고, 늘 열정적으로 학생들의 성적향상과 진학을 고민하면서 행동으로 실천하는 분이었습니다. 지원자 또한 진주시내 인문계고등학교에 근무하면서 고민해왔던 학생들의 성적향상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대학입시 결과를 만들기 위해 당시 부장교사와 함께 어려운 학교 여건 극복을 위해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면서 2학년에 이어 3학년 담임을 같이 했고, **2005년부터 격주 토요일이 시작되었음에도 부장선생님과 함께 토요일을 평일과 같이 학교에 출근하여 제대로 가정에서 쉬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학교 선생님들의 열정과 관심, 담임교사와 학생들의 노력은 2006학년도 입시를 통해 서울대 3명, 고려대 1명이라는 성적(지원자 학급에서 서울대 2명, 3학년 부장선생님 학급에서 서울대 1명, 고려대 1명)을 내었습니다. 부장선생님과 저는 서로를 축하하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단순히 합격이라는 결과보다는 2년 동안 어려운 과정을 따라주었던 학생들이 고마웠고, 노력이 헛되지 않은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해 저는 1학년 부장을 하게 되었고, 3학년 부장선생님은 다시 3학년 부장을 맡아 2007학년도 입시에서 또다시 3명의 학생이 서울대에 진학을 하게 되어 2년 동안의 입시 결과는 경남의 여러 지역신문에 보도되어 본교의 위상에 많은 변화를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고성중앙고 근무 후반기에 들어서는 지역 사립고보다 위상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성중앙고 제자들과 지속적인 만남을 가지고 있고, 제자들의 결혼식이 고성에서 있을 때는 지나는 길에 본교에 들러 학교의 모습을 둘러보면서 저의 젊은 열정이 있었던 근무생활을 회상하기도 합니다.

저는 고성중앙고등학교 교장의 공모 신청을 고민하면서 10여 년 전 이곳에서의 저의 젊은 교사시절 열정과 족적(足跡)을 떠올리면서, 현재 학교가 안고 있는 과제는 무엇이며 재도약을 위한 청사진은 무엇일까?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고성중앙고등학교와의 끈을 맺고 있는 고성에 거주하시는 선배님과 졸업생, 학부모들에게 학교의 발전을 위한 자문을 구했습니다. 또한, 학교교육계획서를 통한 현재의 학교현황 파악과 신입생 미달 등 본교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와 학교 현장 방문을 통해 직접 확인한 학교의 물리적 환경 개선과 고성중앙고등학교의 지역 명문고등학교로서의 재도약을 위해 학교가 공모교장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고, 학교구성원과 지역사회 바람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교장 공모에 지원하였습니다.

흔히 ‘溫故而知新’이라는 한자성어는 옛 것이라는 선입견으로 구시대적 발상이라는 비판을 받기 쉽습니다. 하지만 다소 식상한 문구라도 옛 것을 안다면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에 용이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학교장으로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학생들에게 쏟았던 과거의 열정과 긍정적 교훈을 되살려 고성중앙고등학교를 아끼는 모든 분들과 뜻을 합쳐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쓰는 교장이 되고 싶습니다.

### 3

## 교사의 자리는 학생 옆이라는 교직원으로

저는 지금까지 교직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담임업무는 물론 교무학사, 학년부 업무, 인성부 기획, 연구부 기획 등 대부분 업무를 섭렵했습니다. 교사 대부분이 꺼려하는 학년부장 업무를 9년(1년은 무보직)하면서 학생들 가장 가까이에서 교직생활을 했습니다. 고성중앙고에서 첫발을 내딛었던 학년부장은 이후 8년의 세월동안 지원자에게 학년부장이라는 보직을 걸어주었습니다. 더러는 관리자에게 개인적 사정을 설명하면서 거절도 했지만 지원자가 학년부장을 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교사의 자리는 항상 학생 옆’이라는 지원자의 교직관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이러한 교직관은 교직생활 중 3학년 담임교사 9년, 학년부장교사 9년(4년은 3학년 담임교사와 중복)이라는 교육경력을 만들었습니다.

2005년 당시 지원자는 본교에서 3학년 담임교사를 했는데 ○○면에 거주하던 지원자의 학급 여학생 2명이 통학시간이 왕복 2시간 넘게 걸려 야간 자기주도학습, 심화보충수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 심화수업 수강이 필요했던 상위권 학생이라 교장선생님과 의논 후 여학생들을 학교 생활관에 기거(당시 기숙사 없음)하게 했고, 지원자와 여러 선생님들이 반찬을 만들어서 가져다주어 식사를 챙겼습니다. 또한, 여학생들의 안전이 염려되어 부장선생님과 지원자가 일주일에 1-2회씩 숙직실의 당직자 옆에 잠자리를 마련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살폈습니다. 이러한 학교 측의 배려와 선생님들의 사랑을 학생들이 알고 열심히 공부한 결과 한명은 서울대학교, 다른 학생은 국립대 간호학과에 진학을 했습니다.

2014년 진주○○○에 전입을 하여 첫째 1학년 부장교사를 맡았습니다. 1학년 담임교사들과 소통이 잘 되었고, 학생들이 교사를 믿고 잘 따라주어 1학년 학생들의 생활모습, 성적의 상승폭이 과거의 학생들에 비해 좋다는 평가를 학교구성원들에게서 받았습니다. 믿고 잘 따라주던 1학년 학생들은 당연히 지원자가 2학년 부장교사를 할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지원자는 당시 승진 생각으로 교부부장을 원했습니다. 그런 소식을 접한 1학년 대표 학생들 몇 명이 지원자를 찾아왔고, 그 중 최○○ 학생이 던진 말 중 “선생님 승진 안하면 안됩니다? 우리 따라 2학년 부장 같이 가면 안됩니다?”라는 말은 지원자의 교직생활 중 가장 아픈 상처로 남아 있고, 지금도 당시의 선택이 옳았는가에 대해 자성을 합니다.

그 때 저는 “교무부장을 해도 부담임, 그리고 교과담임으로 너희들 3학년까지 계속 같이 올라간다”라는 말로 변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교부부장으로 할 수 있는 생활기록부 점검 등을 통해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고, 3학년 때 자기소개서 작성 지도나 추천서 작성을 통해 대학진학을 도왔습니다.

교사의 자리는 학생들의 옆이라는 사고는 지원자에게 다소의 불리함도 주었습니다. 학생들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처음으로 교무부장을 시작하던 2015년은 당시 이어져오던 복수담임제가 폐지되고 담임교사를 해야만 담임점수가 인정되던 해였습니다. 지원자는 담임점수의 소중함을 알고 있었지만 특수학급 포함 29개의 큰 학교 교무부장을 처음하면서 담임교사까지 한다는 것은 학생들에게 죄를 짓는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교무부장도 벼랑에 담임까지 한다는 것은 학생들의 희생을 볼모로 개인의 승진 점수를 챙긴다는 생각이 강했고, 그러한 생각으로 담임교사를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제가 소속된 학교보다 큰 학교 교무부장들이 부장 역할과 담임 역할을 동시에 한 것을 보면서 정말 멍청한 선택을 한 것일까 하는 물음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기도 했습니다. 제도의 모순을 인지한 당국에서 다음 해인 2016년 부장교사 경력도 담임교사 점수로 인정했지만 지원자의 2015년 담임점수는 영원히 사라졌고, 그런 이유로 교감 자격연수 순서가 2년 뒤로 밀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을 하더라도 학생들을 위한 올바른 판단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제도의 모순을 제공한 당국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 4

### 더 좋은 학교, 고성중앙고등학교를 위하여

현재 고성중앙고등학교 비전은 ‘좋은 학교, 고성중앙고등학교’입니다. 저는 ‘더’라는 단어 하나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새롭게 발돋움하는 ‘더 좋은 학교, 고성중앙고등학교’를 학교비전으로 설정하여 ‘더’라는 단어의 의미가 내포하고 있는 개념 속에 고성중앙고등학교의 발전 역량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지역의 으뜸이 되는 학교, 경남의 명문고 반열에 우뚝서는 학교, 대한민국의 농어촌 교육의 표준 모델로 고성중앙고등학교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학교구성원들과 함께 저의 모든 역량을 쏟을 것입니다.

첫째, 학생 맞춤형 수업을 통한 진로진학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로진학 TF팀운영으로 성적관리, 대학입시 관리를 시스템화하고 체계화하여 학교의 진로진학 노하우가 축적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학생 간의 학력편차가 크기 때문에 학교교육과정을 투트랙(Two-track)시스템으로 운영하여 수월성 교육과 뒤쳐지는 학생 없는 교육을 내실 있게 할 것입니다. 또한 사서교사 확보 등 독서교육의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공감과 소통을 가장 중시하는 학교 공동체 운영입니다. 학교장-교사-학생-학부모-동창회-지역사회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정례화된 소통의 시간 확보를 통해 학교구성원들의 욕구와 그 욕구에 대한 해결방안을 공동으로 찾고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자가 되겠습니다.

셋째, 인성교육 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칭찬(칭찬 댓글 달기 운동)과 인사의 2인칭 운동을 전개하여 학교가 바른말, 고운말의 정의적 공간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학생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규칙을 학생 스스로 개정하고 실천하는 교육, 지역 내 소외 어르신, 다문화 아동들에 대한 봉사활동을 통해 나눔과 배려 정신의 실천 교육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마을교육공동체를 통한 교육의 다양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열린 기관으로서의 학교 시설 사용, 지역인사나 동창회와 연계한 특기적성 프로그램 개발, 고성교육사랑 활동 등 고성지역 중심학교로서의 위상을 정립함으로써 학교 자체교육만의 한계를 지역사회와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쾌적한 교육환경 구성으로 학교의 공간을 혁신할 것입니다. 학생들의 정서순화 공간과 교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생중심의 다양한 교육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의 신축과 재배치,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하여 공간혁신을 위한 TF팀을 조직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과 분석, 선진학교 벤치마킹 등을 통해 전국 으뜸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여섯째, 회계 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학생의 교육활동에 초점을 둔 예산 편성, 학교장 업무 추진비의 부서별 이관으로 구성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의 적기 집행을 통해 교육적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학교 홍보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학교 홍보를 통한 신입생 모집 및 찾아가는 대학입학사정관 팀의 구성과 실시 등 학교장이 직접 TF 팀장의 역할을 맡아 발로 뛰는 학교장이 되겠습니다.

더 좋은 고성중앙고등학교 청사진의 완성으로 경남의 으뜸 학교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저의 모든 역량을 바치고자 합니다.